

# 상품화에 밀려 하향 평준화

결산 99

반성적 시각으로 본 불서출판 현주소

새 천년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래서인지 밀레니엄의 끝을 매듭짓는 99년은 세기말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절박함과 함께 불교 문화의 새 세기를 전망 하라는 조금은 거창한 숙제를 던졌다.

출판물이 모든 문화현상을 대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의 층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금석'의 구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99년 한해동안 불교 출판계를 이끌어간 큰 흐름을 짚어본다.

## '풍경' '만행' 베스트셀러

80년대까지의 베스트셀러가 출판인들의 모험과 직감의 산물이었다면, 90대 말의 베스트셀러는 철저히 전략적 산물이다. 이러한 점은 베스트 불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일반 출판사가 불서를 낼 경우는 더욱 그렇다. 올 한해동안 베스트불서로 손꼽혔던 불서 가운데 90% 이상이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일반출판사의 책이란 점이 그것을 증명한다. 새 천년도 이같은 흐름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돼 불교 출판계의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교계의 반응은 찬반양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포교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불서는 불자만 읽는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비불자들까지도 쉽게 읽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 엄격한 시각에서 보면 이런 독자들을 포교했다고는



○세기말 시중에는 500여권의 불서가 출간돼 200여권 정도가 독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외면당하는 시중 서점의 불교코너. 이것이 불서출판의 현주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잘 팔린책 대부분 일반출판사 기획물

## 불서 대중화·질적향상 여전히 숙제

## IMF·조계종사태등 교계 출판시장 악재

볼 수 없다. 다만 불교라는 종교의 매력을 맛보게 한다는 선에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일반출판사들이 '스님'을 지나치게 상품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불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책만 많이 팔리면된다. 이로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몇몇 스님들의 책이 '장기간 인기 상한가'를 장악하면서 너무나 큰 그늘을 만들어 불서의 질적 성장과 다양성을 즐기고 있다는 점이다. 원성스님의 <종경>(이레), 법정스님의 개성관 <무소유>(범우사), 현각스님의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열림원) 등도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책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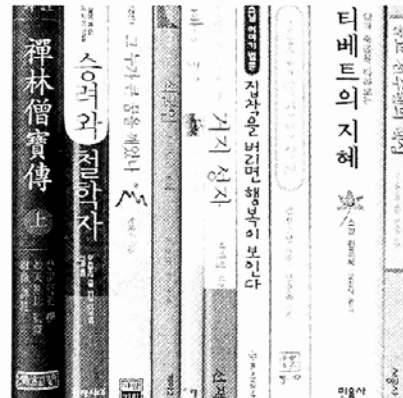
IMF 환란과 두 번의 조계종 사태도 출판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 IMF 환란으로 출판사에서는 명상서나 경전속의 명구들을 거러뒀다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이처럼 '가볍게 읽고 진한 감동받기'도 올해 베스트불서 특징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연초 재연스님의 <입산>(문화동네)을 시작으로 <승려와 철학자>(창작시대), <거지성자>(선재),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불교시대사), <영가천도>(효림)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또 <티베트 오 지혜>(민우사), <티베트의 성자와 보낸 3일

>(술),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정우사) 등 티베트 관련 책이 인기를 끈 것도 이런 흐름의 셋 강이라고 볼 수 있다.

간간히 출간되는 경전과 선(禪)해설서 또한 독자들이 즐겨 찾는 불서 목록이다. 올해도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여시아문)를 비롯 <선림승보전>(장경각), <파란 스님의 한국 선 수행기>(예문서원), <금강경 강해>(통나무), <불교선 수행의 핵심>(시공사) 등이 출간돼 요란을 떨지 않고도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 禪해설서 꾸준히 인기

하반기를 접어들면서는 논쟁적인 내용을 담은 책들이 속속 출간되는 흥미로운 현상도 나타났다. 성낙주씨의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개미고원)과 해봉스님의 <종정열전 그 누가 큰 꿈을 꾀었나>(천고에 자취를 남긴 학처럼)(가람기획)이 그 주인공들이다. 성낙주씨가 펴낸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은 미학적인 상상력으로 가득한 '석굴암론'을 제시해 학자들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해봉스님은 종정열전을 통해 효봉스님을 비롯 근대 고승들의 전기 중 잘못 알려진 부분을 파헤쳐 교계의 이목을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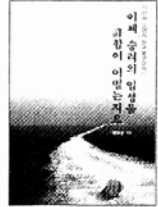
시켰다.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주체는 크게 독자, 필자, 출판사로 볼 수 있다. 이 셋이 긴장과 조화를 이루며 키를 높일 때 출판문화는 성숙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 전문 출판계는 이러한 축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이에 대해 불교 전문 출판계의 한 관계자는 "교계출판계가 불황의 종지부를 찍으려면 무엇보다 교단과 승가의 풍토가 변해야 한다"며 "이것이 불서출판의 하향 평준화 현상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다"고 분석했다. 불교계에서 스님이라는 존재는, 수행자이면서 성직자이고 인생의 교사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러한 분석의 근거로 들었다. 다가오는 새 세기에도 불서의 대중화와 질적 향상이라는 까다로운 숙제는 여전히 따라다닐 것이다. 명쾌한 답은 없다. 독자와 필자와 출판사가 지적 줄다리기를 하면서 서로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 말고는.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 왜곡된 20세기초 불교 '바로알자'

## 박희승씨 '이제 승려의...'

1876년 개항에서 1912년 사철령 시행까지 한국근현대사를 새롭게 조명한 <이제, 승려의 입성을 허함이 어떨는지요>(들녘)가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불교근대사 연구모임의 회원인 박희승씨는 이 책을 통해, 갑오경장 때 도성 출입금지 해제 조치는 일본승 사노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박영효씨가 성사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영효씨는 사찰과 승려 관리 부서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고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박영효씨가 "이제 승려의 입성을 허함이 어떨는지요"라고 고종에게 아뢰자고 종이 "그렇게 하라" 했다는 기록을 그 근



거로 든다.

이와함께 박희승씨는 △원종은 친일적인 종단이 아닌 근세 최초의 자주적 종단 △개화승 이동인 스님은 친일파가 아니라 애국자 △개화당은 조선사회를 혁신하려던 불제자들의 정치결사 △최초의 교단 분류는 1910년 원종과 임제종의 대립 △1899년 해인사에서 경허스님을 중심으로 시작된 결사와 선방 재건 운동이 오늘날 조계종단의 정신적 뿌리 등의 주장을 펼치며, 검증없이 정설로 왜곡돼 온 한국불교근대사에 이의를 제기한다.

## '불교기자협회 십년사' 불교언론 발자취 정리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불교 언론의 효시를 이룬 최초의 불교잡지 <원종>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불교언론의 발자취를 정리한 <불교기자협회 십년사>(한국불교기자협회)를 펴냈다.

<불교기자협회 십년사>에는 사진으로 보는 불기법 10년을 시작으로 특별한 단 '교계현실과 불교언론이 나아갈 방향', 일제치하에서부터 90년대까지 불교언론을 정리한 '한국 근현대 불교언론 변천사'를 조목조목 담고 있다. 또 불기법 창립 배경과 활동, 매년 연수회와 강연회에서 실시한 강연 전문 등을 실어 한국불교기자협회의 10년간 활동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부록으로 회원사 약사, 역대 불교언론인 명단, 불교계 신문·잡지 목록, 불교언론사 연표 등이 수록돼 불교언론의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하춘생 회장은 "종교언론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언론 보편의 역할을 찾기로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선도할 성숙한 언론을 구현하는 단채로 거듭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값 7만원.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지·편자	출판사
1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2	금강경 강해	김용욱	통나무
3	종경	원성 이레	
4	노자 21세기	김용욱	통나무
5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6	원효어록 100선	이영일	불교춘추사
7	영가천도	우 흥 표 린	
8	부처님께 재를 털면	스티븐미	여시아문
9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현 장 우 리	
10	무소유(개정판)	법 정 범 우 사	

도서 안내: (02)737-0695

##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선(禪) 302

여시아문은 '물든 바, 먼 치의 어둠도 없이 전해졌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충무로 경쳐동 110-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 '어떻게' 도업(道業)을 이룰 것인가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종일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허운 스님의  
**방편개시**  
方便開示

도업은 이루기 어려운데,  
처음 출가했을 때는 도심(道心)이 좋았으나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출가 1년에는 부처님이 눈앞에 있고,  
출가 2년에는 부처님이 서천(西天)에 있으며,  
출가 3년에는 부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도심이 오래가지 않으면 도업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슬 같은 도심으로 어떻게 생사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 본론 중에서

## 허운 스님은 누구인가?

허운(虛雲)스님은 1814년에 중국의 복건(福建) 천주(泉州)에서 태어나 1969년 세수 120세 승랍 101세로 운거산에서 입적하였다. 청말(淸末) 이후 쇠퇴한 중국 불교를 다시 일으킨 고승으로 추앙받는 허운 스님은, 19세에 출가하여 30대부터 여러 곳을 두루 돌며 참학하다가



43세 때 3보 1배(三歩一拜)로 오대산을 참배한 뒤,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였고, 56세 때 찾았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에 문득 깨쳤다 한다. 특히 스님은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의 억압하에서도 불멸을 수호하고 사찰의 파괴를 막았으며, 수십 개의 가람을 복원하였다.

허운 스님 지음 / 대성 스님 옮김  
86 변형 330쪽 / 값 6,000원